

## 교회 소식

-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매일 저녁 9시 아프신 분들과 우리를 고치고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나라들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3월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9-10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다락방을 열어두겠습니다.
- 지난 주 공동의회에서 예결산위원회의 결산 보고와 예산 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김병규 집사가 2024년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심방 일정표에 심방을 신청해 주십시오.
- 지난주 금요일(29일) 저녁 9시 이승택 집사의 모친 배정자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며 유족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위로를 빕니다. 뷰잉예배는 월요일(4일) 저녁 6:30, 하관예배는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 중앙장의사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  
- Pinelawn Memorial Park: 2030 Wellwood Ave. Farmington, NY 11735
- 다음 주일(3월 10일)부터 일광절약제(DST “섬머타임”)가 시작됩니다. 한 시간이 당겨집니다.
- 오늘 친교를 섬겨 주시는 최경자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윤정숙 권사 (시편 107:1-3, 17-22)
- 친교: 석동훈/강승연 집사
- 3월 안내: 함인옥 집사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 **English Service:** 2:00pm, Zoom
-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제24권 9호

2024년 3월 3일

<2024년 문어>

열린 문으로

(요한계시록 3:7-8)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Pastor Edwin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Prayer-----	Erin Suk
Word of God-----	Isaiah 53:4-5 ----- MinyoungSuk
Sermon -----	“He Takes Our Sickness” Pastor Edwin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36(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함께
Hymn	145(145) “오 거룩하신 주님”
	180(168) “하나님의 나팔 소리”
대표기도 ----- 시편 19 -----	석동훈 집사
Prayer	
찬양대----- “오 세상의 구주” -----	세광찬양대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마 7:7-14 -----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351(389)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오늘의 말씀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마 7:7-14)**  
 말씀은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믿지 못하고 우리도 때로 의심하고 오히려 속상하지만,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세상 아무나가 아니라 자기 자녀로,

아무에게나 아무 것이나 구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달라도 뭔가 다른 삶을 그려줍니다. 세상 복과 자기 만족과 다른 복, 세상과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향력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이방인도, 자기 생각을 따르는 서기관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따르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상급의 전부인 바리새인과 달리 은밀한 중에 갇으십니다.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르며 중언부언하는 이방인과 달리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 따라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 나라와 의를 간구합니다.  
 그러니 구합시다. 필요한 것부터 구합시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다리며 구합시다. 우리의 구함은 마중물이고 아버지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기록하고 의로우신 아버지께 더럽고 불의한 것을 구할 수 없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는 점점 아버지의 성품과 소망을 닮아갑니다.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구하는 대로 베풀 수 있습니다.  
 찾읍시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들을 찾아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복을 구하다가 얼굴을 뵈옵고 이름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을 구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구주, 우리를 찾아오시고는,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해 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두드립시다. 우리는 문이 열리고 길이 통하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곳으로 향하는 문, 주님이 가지 않을 길로 열린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이 휘장처럼 찢기시고 만세반석이 열려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주님이 가시는 길을 향해 두드립시다. 좁은 길, 험악한 문처럼 보였지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 주님과 함께 하는 의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정문이 열릴 것입니다.